

아
르
바
이트

대학생 용역방제단

“作業熱意 높고 경작자 신임받아 성공”



서울시농촌지도소 기술담당관 이 석 우

1. 조직동기

모든 산업이 가장 선진적인 수도 서울임에도 그중 농업만은 부끄럽게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가장 뒤떨어진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이유는 부재지주, 출입경작자 등 불실 경작자의 증가, 도시하수와 산업체의 매연등 부적한 환경, 부동

산싯가 상승만 기대하는 지주의 투기심리, 단순농업노동 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와 취업기회 포착의 용이 등으로 시한영농이나 정밀 작업등을 소홀히 생각하는 경작자가 대다수이며 수량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병충해 방제가 적기에 되지않아 단위면적당 수량이 낮은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 하겠다.

적기 방제 못해 收量저조

그러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관문인 김포공항 주변과 시내로의 진입로는 외국인들로부터 우리나라의 농업을 평가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시범포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선진농업 기술혁신으로 풍요한 농촌과 발전된 조국을 자랑하고 싶은 것은 필자만의 욕심일까?

그래서 관주도형의 영농 지도가 이루어지고 어느 경작자의 소유인 지도 모르는 벼에 농약을 살포 할뿐만 아니라 다소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농가도 잘못 제도된 농약의 공포감으로 인하여 농약을 만지는 것조차 기피하고 또한 이를 소홀히 취급하므로써 피해를 보는 농가가 허다하다.

병충피해막고 학비조달 목적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돈 만내면 적정농약을 선정 적기살포로 병충해로 인한 피해를 감소함은 물론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조달하고 부족되는 농촌노동력을 보충하며 젊음을 국가시책추진에 이바지 한다는 숭고한 사명감등 일석사조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어 아르바이트 대학생 용역 방제단의 조직을 추진하게 되었다.

학문의 현장실습의의 매우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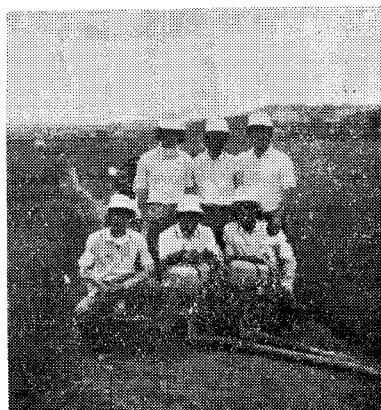
이는 최근 여름방학중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많이하는 교통정리원, 백화점 짐운반꾼, 야경순찰, 관광지안내등과는 차원이 다름을 강조하고 싶은 이유는 학교에서 배운 농업이론을 농촌에 적용 시켜 볼 수 있는 실습의 기회로 교육의 효과를 배가할 수 있음과 증산에 직접참여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 때문이라.

2. 조직 및 운영

가. 활동 준비

市内거주 농대생중 6명선발

서울에 있는 각농과대학에 연락



◇ 대학생 용역방제단을 결성한후 방제작업에 들어가기전에 기념촬영을 갖았다.

◇ 대학생 용역방제단 운영성과 분석과 개선점 ◇

하여 학교로부터 추천받은 4개대학의 21명 중에서 시내에 거주하면서 가정형편이 어렵고 의욕적이고 신체건강한 학생중에서 식물보호학과 3명, 농학과 2명, 농기계학과 1명 등 6명을 우선 엄선하고 반장, 총무, 기계담당, 방제담당등 책임부서를 정하여 시범운영하고 수탁량이 많을 경우 추가 확대기로 하였다.

방제비 : 10a당 <유제 1,200원
입제 750원

선발된 방제단원들과는 3회에 걸친 협의회를 통하여 운영계획과 활동요령을 확정하고 농약안전사용과 농기계제작·농약회석 및 병충별 적정농약에 대하여 철저한 교육을 실시한후 단위면적당 살포 용역비를 농가에서 관행되고 있는 기존 개인별살포 용역비와 같은값인 10a당 물약은 1,200원, 가루약, 씨락약은, 750원으로 결정하고 여름방학이 실시된 직후인 7월 13일 부터 본격적으로 활동기로하였다.

자취하며 경비실서 합숙

작업능율을 올리기 위하여 주요 활동 기간에는 합숙기로 함에 따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과해동에 있는 정미소의 경비실을 무상으로 빌려서 이들을 자취케 할 수 있었으

며 참고로 이들의 활동 요령을 요약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활동기간 : 여름방학기간 동안 단, 기간방제 통보에 의한 방제적기에는 현장본부에 전원이 정시(09시)에 출근하여 방제에 임하고 기타 기간에는 최소한의 근무자만 근무하되 용역신청에 의한 방제물량이 있을 때에는 즉시 방제에 임할 수 있도록 한다(추후에 합숙기로 합의 함에 따라 전원 합숙, 자취 하였음)

② 현장본부 설치

◇ 위치 : 강서구 과해동(필요에 따라 옮길수 있음)

◇ 준비물 : 텐트, 책상, 의자. 안내판, 현수막 및 각종 장부등.

◇ 필수장비 : 동력분무기 2대, 동력살분무기 2대, 공드람 2개, 양동이 2개, 방제복, 고무장갑, 마스크 등 방제작업에 필요한 기자재

③ 활동범위

현장본부 소재지역 주위(김포공항주위)를 원칙으로 하되 일정량의 작업량이 확보되면 이동하여 방제 할 수 있다.

④ 활동방법

◇ 수탁 : 방제를 필요로하는 경작자는 서면, 전화, 또는 구두로 할수 있으며 용역비는 선불을 원칙으로

◇ 대학생 용역방제단 운영성과 분석과 개선점 ◇

하되 사정에 따라 후불 할 수 있다.

◇ 비용 : 소요농약대금은 경작자가 현물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서 농협의 대농민 공급 가격으로 현금 부담할 수 있다.

용역비는 지도기관에서 추천하는 농민대표와 용역단과의 합의에 의하여 제제별로 결정하여 지도소장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 방제 : 필요농약은 경작자의 기호에 따라 결정 할 수 있으나 담당 지도사의 자문을 받아 결정한다.

적량살포를 위해 적정배수로 희석하여 10a당 물약일 경우 본담전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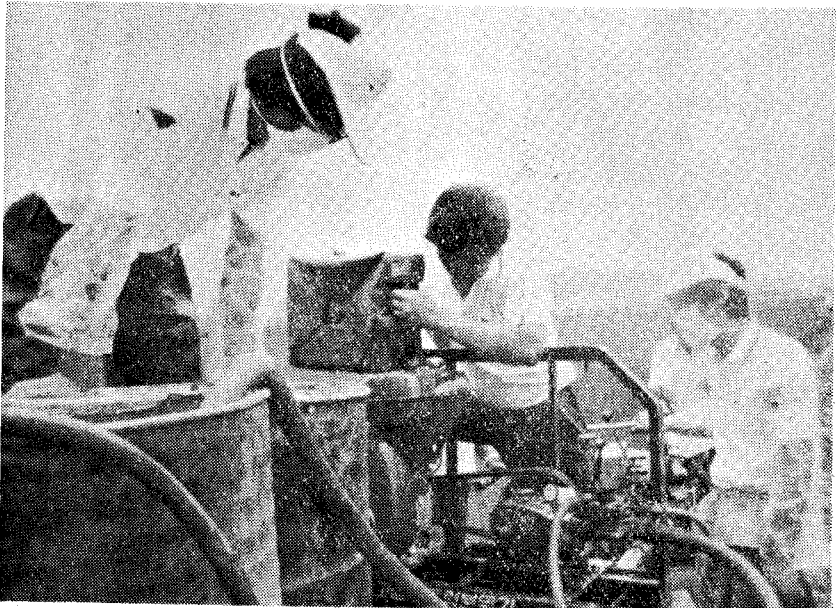
는 80~100%, 후기에는 120~140%를 가루약 및 씨탁약은 전기 3kg, 후기 4kg을 기준으로 한다.

◇ 살포확인 : 가급적 경작자의 입회하에 살포하며 담당지도사가 감독할 수 있으며 방제작업이 종료됨과 동시에 정산 하여야 한다.

⑤ 지원

보유하고 있는 각종방제 기구 무상대여, 장거리 이동시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전담지도사 배치 및 특별지도를 실시한다.

농기계 및 농약안전사용과 병충해



◇ 대학생 용역방제단이 농약살포작업에 들어가기전 동력분무기를 사전 점검하고 있다.

◇ 대학생 용역방제단 운영성과 분석과 개선점 ◇

에 대한교육과 해독제를 지원 알선하고 신문·방송·앰프방송 및 부락게시문·경작자안내문과 현수막 등을 설치한다.

기타 용역방제단에 필요한 사항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적극지원한다.

나. 활동 지원

현신적 장석호지도사의 독려

지역담당지도사를 전담지도사로 지정하여 방제단의 문제점 검토해결, 부락민과의 연결, 수탁필지의 확인 및 대금징수에 모든 편의를 제공토록 지시받은 장석호 지도사의 왕성한 책임감과 투철한 사명감이 보이지 않는 성공요인이 됐다. 아침 7시까지 자택에서 6km나 되는 현장속소에 도착하여 피곤하게 잠들어 있는 단원을 깨워서 장비점검과 농약확인 및 그날의 작업량과 살포필지등을 확인하고 출근하는등 현신적인 활동이야말로 자아를 초월한 희생정신의 발로로 높이평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다. 농 약 공 급

농약선정, 방제단에 위임

대부분의 농민이 농약선정과 구입을 이들에게 일임하므로 담당지도사와 부락영농회장의 채무보증으로 단위조합에서 외상구입하여 살포하고 뒤에 정산하였음(정산농약대:에디펜유제의 5종:684,800원)

라. 대 금 정 산

용역비 아끼지 않고 격려

살포직후 현장에서 용역비를 지불토록되어 있었으나, 사정에 따라서 즉시 정산하지 못한 농가는 비오는 날을 택하여 가정방문, 징수 하였으며 대부분의 경작자는 이들이 아르바이트 학생임을 감안하여 용역비지불과 이들의 활동에 대한 격려에 인색하지 않았다.

3. 운영결과

◇활동기간 : 7.13~8.5(24일간)

◇작업일수 : 17일간(1/2작업 1일 포함)

◇방제면적 : 86.7ha (연면적 242.8ha)

◇ 대학생 용역방제단 운영성과 분석과 개선점 ◇

◇수탁농가 : 91농가

◇비용결산

○수입 : 1, 015, 160원

기금조성 : 2, 000원 × 6명 = 12, 000원

용역비수입 : 971, 160원

찬조금 : 32, 000원

○지출 : 321, 160원

생활비(식대, 생활품), 112, 950원

기계운영비, 156, 110원

(S.S 분무기 1대, 2일 임차료

및 운영비 87, 000원 포함)

의료비, 7, 600원

교통비, 8, 500원

기타선물비, 36, 000원

○잔액 : 694, 000원

◇개인별 수입(배당금)

175, 000원 : 2명

151, 000원 : 1명(1일결석)

138, 000원 : 1명(10일간 오전만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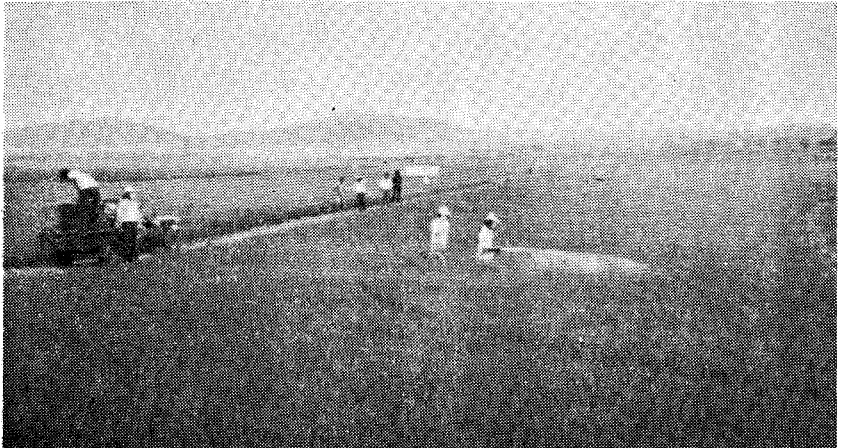
46, 200원 : 1명(가정사정으로 중도에서 탈락)

8, 800원 : 1명(가정사정으로 중도에서 탈락)

4. 성공요인

최초시도로 체력의 한계느껴

여름방학 기간중 계속 활동할 계획이었으나 본담후기 흑명나방 등의 방제를 위해 몇일간 계속 농약을 살



◇ 학교에서 이론적으로 배운 농약살포요령을 실제본담에서 실천하고 있는 대학생 용역방제단의 농약 살포 모습

◇ 대학생 용역방제단 운영성과 분석과 개선점 ◇

포한 결과 학생들이 많이 지치고 피로를 겪음은 물론 경증의 중독증상이 나타남에 이를 중단토록 권유하여 활동을 종료하였으나 이는 처음 시도한 사업임과 생후 처음 농촌농업 노동에 참여한 학생임을 감안하면 24일간이라는 활동기간과 87ha의 방제면적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용역수입, 또한 1인당 약 150,000원~170,000원은 이들에게는 큰보탬이 되었다고 생각되며 이같이 성공하게된 요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전에 치밀한 준비와 계획에 의하여 충분한 활동지원

○관계기관장(농촌지도소장 김득래)의 수시 방문, 격려로 사기진작과 간담회를 통한 애로사항의 적극적인 해결조치

○지역담당지도사의 능동적인 협조지원 : 대학생 아르바이트라는 주민들의 인정감에 대한 학생들의 자부심.

○양심적인 농약희석과 적량살포로 인한 경작자의 신뢰등

5. 당사자의 반응

운영성과 긍정적으로 분석대

본 사업의 효과와 앞으로의 개선 발전을 위하여 수탁농가중 일부(91농가중, 35호)와 참여 학생들의 반응을 조사한바 대부분 긍정적으로

받아드린 이유는 시대적인 요구와 지역적인 특성이라 생각되며 이들의 반응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수탁농가의 반응

“내년에도 다시 위탁하겠다”

다른 사람이 방제할때 보다 방제 효과는 좋다고 생각되며 살포량은 월등히 더 많이 뿌린것 같고 물 1말에 넣는 농약의 양은 아주 적게 넣는것 같으며 용역비는 다른 사람과 같거나 싼것으로 평가하며 평당 4원은 너무싸고 5원이 적당 할 것이라고 생각되며 내년에도 계속 한다면 대부분 다시 수탁 하겠다는 반응임.

나. 참여학생들의 반응

“자신의 성숙에 큰 도움돼”

◇ 박종민 군(성대·농업기계과) : 농촌을 보다 밀도있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출생후 처음으로 돈을 벌게된 것과 일생일대의 아름다운 추억과 아울러 자신의 성숙에 도움을 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됨

“농대생으로 꼭 경험해야”

◇ **장성별 군(고대·식물 보호학과)** : 방제활동을 하는 동안 대학생활내에 서 체험해 보지 못한 많은 어려움에 부딪혔으나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의 성장이 촉진 되었다고 생각되며 농대생이라면 누구든지 한번씩 경험해 보직한 작업이라고 생각됨.

6. 문제점및개선방안

합리적인 용역비 결정

제3자의 원만한 중재필요

수탁자와 용역단과는 상호이해가 상반되기 때문에 사실상의 서로 만족한 금액 결정은 어려우나 수탁자 입장에서는 인근지역의 개인 수탁방제 용역비(단위 면적당 살포량은 무시하고)를 상한선으로 하여 그 이하로 결정되기를 원하며, 방제단 입장에서는 아르바이트 대학생이라는 특수여건을 고려치 않더라도 방제작업은 경작자 자신도 싫어하는 악성노동인 만큼 충분한 땅의 댓가를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완전한 합의는 어려우나 제 3자의 중재에 의한 합리적인 용역비가 결정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장시간 작업과 과로문제

교대근무로 과로피해야

그날의 작업량에 따라 일당이 보장되므로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장시간 작업으로 인하여 과로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해소키 위해서는 수탁, 접수, 취사등을 위한 현장본부 근무를 상호 교대하도록하여 휴식을 취 할수도 있을 것임.

노즐잡기 서로 회피

분사되는 농약과 가장가까운 위치인 노즐잡기를 서로 회피하여 상호 눈치만 보는 경우도 있었으나 이는 2시간씩 교대 하기로한 약속 후부터는 해소 되었음.

방치된 유리조각

물장화를 착용토록 준비

마구버려져 깨어진 농약병 유리조각으로 인하여 발부상을 당하지 않은 학생이 없었으나 이는 각자 농민들에게 안버리기 운동을 전개함과

◇ 대학생 운영방제단 운영성과 분석과 개선점 ◇

아울러 이미 버려진 약병은 “내눈은 네가 즐겁”라는 구호아래 추수후 논에 대청소 실시가 바람직하며 직접 논에 들어가서 노즐을 잡고 살포하는자는 물장화를 반드시 준비 착용토록 하여야 할 것임.

시간절약과 영양섭취

○ 경비절약과 시간절약을 위하여 식생활에 투자하는 비용과 시간에 너무인색함에 따라 건강 유지가 우려됨

○ 수탁농민과의 안면이나 수탁필지의 위치확인 등을 위하여 지역담당지도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함

7. 앞으로의 계획 —②

7월 31일 비오는 날을 택하여 김득래지도소장께서 이들을 격려하기 위한 회식을 제공 한자리에서 S대 3학학년 P군은 “출생후 처음 먹어보는 불고기라서 평생잊지 못하겠다”는 믿어지지 않는 말을듣고 이렇게 어려운 환경하에서도 자기손으로

노력하여 공부하려는 농학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농촌의 앞날이 결코 머지 않아 살기좋은 낙원으로 변모될 수 있는 원동력에 마음 든든함을 금치 못하였다. 또한 노력하려는 이들에게 짧은 기간이나마 노력한 만큼의 수익이 보장되는 일 자리를 우리 다같이 노력하여 확보 해주어야 하며 특히 지역여건상 불실경작가 많은 우리 서울지역의 영농형태로 보아 절실히 필요한 방법이라고 생각되며 앞으로 어떤 특정 개인이나 회사에 의하여 상당한 면적의 농작업을 “전작업 수위탁 영농형태”나 이양, 방제, 수확 등 부분작업 수위탁의 확대발전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때 성실하고 속임없이 방제해 주는 “아르바이트 대학생 운영방제단”을 들별로 1~2개씩 조직 운영해 볼 필요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된다.

끝으로 저는 듯한 삼복더위에서도 증산의 역군으로서 젊은이의 의지와 긍지를 잊지 않고 끝까지 성실하게 활동한 서울대 농대 정치국군, 고려대 농대 장성영군, 이해일군, 심명용군, 성균관대 농대 박종민군, 박수용군에게 감사와 격려를 보낸다.